

화재안전 분야 취약요인 개선방안

1. 전체 읍면동 중 하위 10% 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지수 상향 견인 노력

- 충남도 취약지역 안전진단을 통해 도출된 하위 10% 지역은 면단위에 집중
- 화재분야 안전도 향상을 위하여 취약지역 개선계획 수립과 2~3년 단위 중기사업 발굴로 특교세 등 재원 확보

2. 소방력의 지역 간 불균형과 구조실적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방안

- 골든타임을 초과하는 경우 사망자 및 재산 피해 발생 2배 증가
- 지역별로는 시부가 군부보다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높았으나, 도로혼잡 등 시부의 여건이 불리해지고, 군부의 개선도가 높아져 최근에는 시부의 도착시간이 연장되고 군부는 단축되는 추세
- 출동지연 원인에 따른 해소방안 제언

지역	출동지연 원인	해소방안
천안서북구, 아산시, 서산시, 계룡시	이동중 장애물 발생 지역	- 화재출동에 따른 교통 통제, 골목 주차 단속, 소방차 접근불량 지역의 접근로 확보, 교통정체 시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정책 실시 - 소방차 출동 시 간선도로 최대 이용 및 이면도로로 최소화 -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적극 도입
공주(5.61km), 태안(5.67km), 금산(5.46km)	출동 거리가 긴 지역	- 발생지역과 출동 위치 간 심층 분석을 통해 안전센터 위치 조정 - 전체 가구 대상 주택 소방설비 보급 및 성능개선 사업 실시 - 행정복지센터 등에 소방장비 및 인력 파견 운영 - 개인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등 개인소방장비 보급과 교육
청양, 논산	도착시간이 늦고 구조실적도 낮은 지역	- 출동체계와 동선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원인분석 실시

자료: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. 2021. 충청남도 화재 데이터 분석

3. 화재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방안

- 노인독거세대에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화재감지기 및 화재경보기 설치
- 유·아동의 화기사용에 대한 안전조치와 화재 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 방법 숙지를 위한 부모·아동 교육·홍보 실시
- 의용소방대원, 주민자치회 등 참여를 통한 화재취약계층 1:1 케어 실시
-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전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화재경보기 설치 우선 지원

4. 화재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방안

- 다가구·다세대주택에서 집중 발생하는 화재 원인이 담배꽂초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 강화
- 산불 원인 중 하나인 임의 소각에 대해 지정된 장소에서 신고 이후 물건을 소각하고, 논·밭두렁 태우기가 해충 박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홍보
- 단독주택과 축사 등의 주된 화재원인인 전기적 요인의 위험성을 알리고, 건축물 노후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선정 및 점검 실시(국가안전대진단 등 국가 시책과 연계)

5. 기타 지수관리 방안

- (화재통계관리) 화재관련 통계의 지속적 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화재 사각지대 발굴 및 화재정책 지속성 확보
- (이벤트성 화재관리) 발생 빈도는 낮으나 인명피해가 큰 화학적 요인, 가스누출 관련 공장 화재, 선박화재, 다중이용시설 등 개별 화재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 강화

충남 정책지도 2022-05 통권 32호

충남 시군별 지역안전지수¹⁾ 화재분야 취약지역과 개선방안

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센터장



- 최근 5년간 충남도 화재분야 지역안전지수 3~4 등급 수준 유지
- 주민 1만명 당 화재 발생건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2020년 말 기준 충남 평균 9.8건으로 전국 평균(7.5건)을 상회하여 감축노력 요구
- 최근 5년간 인명피해 중 사망자 발생 비율 전국 평균 14.4%, 충남지역 30.1%로 2배 이상 높은 수준
-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, 오히려 군단위 지역에서 더욱 취약
- 주거지역(65.7%), 농어촌(53.9%), 단독주택(56.4%), 65세 이상 고령자(52%)에 집중 발생
-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, 지역별 위험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대안 제시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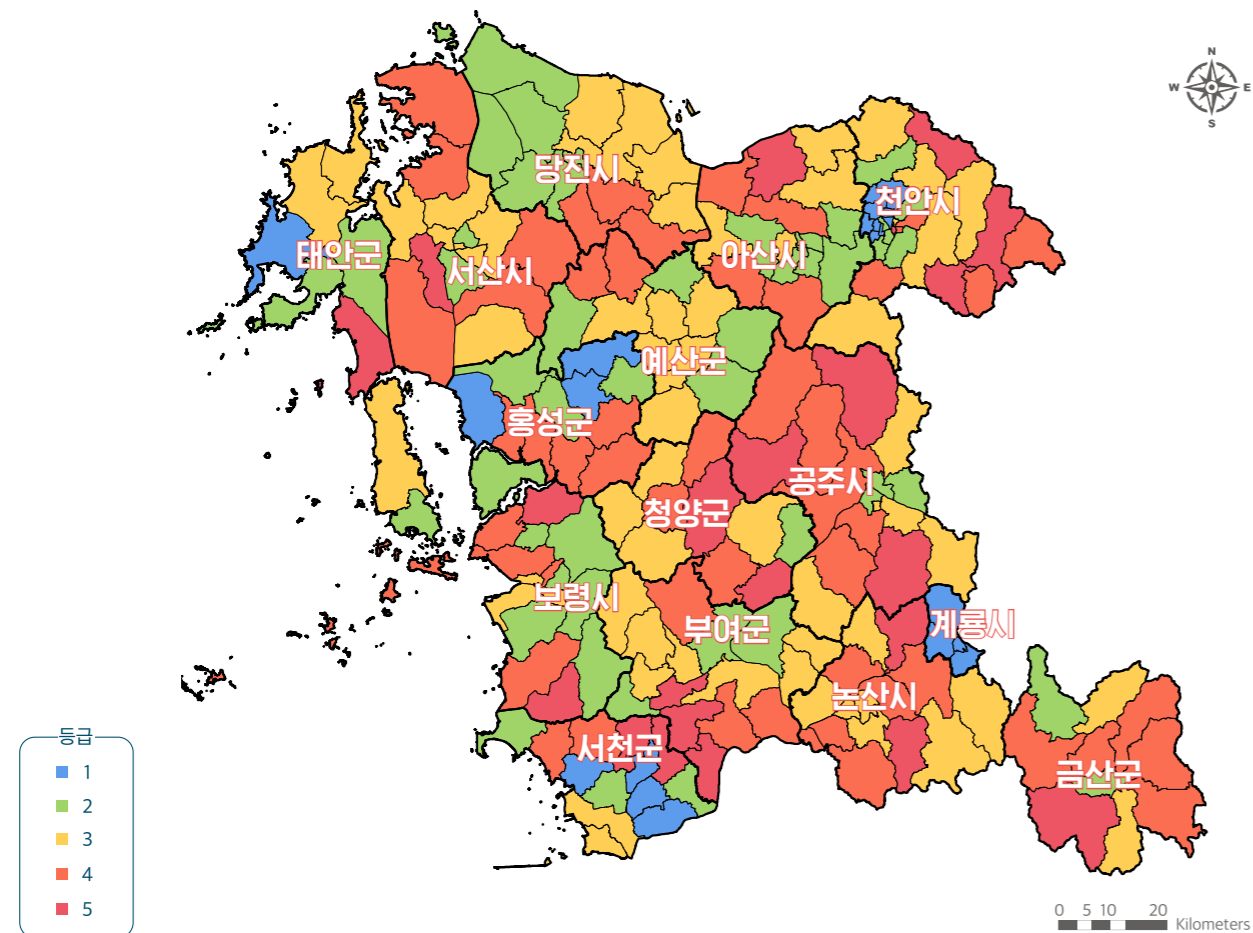
1)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의 10에 근거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2015년부터 공표. 지역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찾는 데 정책적 목표가 있음

충남도 지역안전지수 화재분야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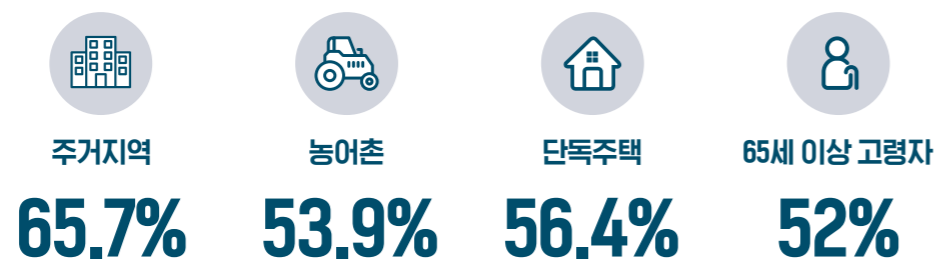
2021년 기준 지역안전지수 등급 기준의 위해·취약·경감지표를 반영한 읍면동 등급 현황

위해지표(50%)	취약지표(20%)	경감지표(30%)
환산사망자*(.500) *사망자(0.496)+발생건수(0.004) ※ 교통사고 화재 제외	① 인구만명당노후건축물수(-.142) ② 인구만명당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(-.058)	① 발생건수당화재구조실적(+.087) ② 주상공관리지역면적당*소방서 종사자수(+.163) ③ 소방정책예산액 비율(+.050) *행정구역 면적 중 주거+상업+공업+관리지역 면적

직전년도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위해, 취약, 경감 지표를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, 시군구로 구분, 1~5등급 부여(10%:25%:30%:25%:10%) **1등급일수록 안전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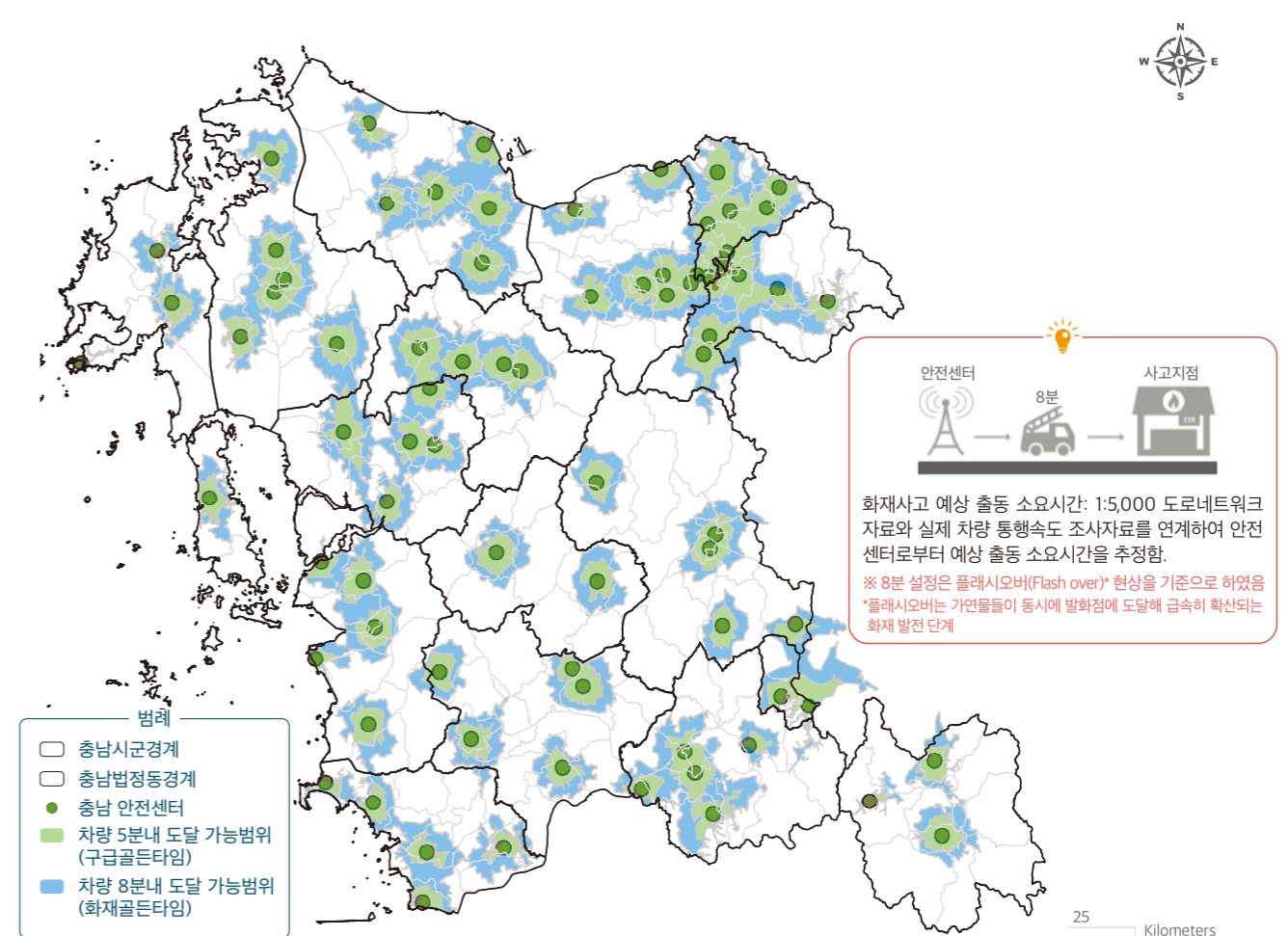


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, 오히려 군단위 지역에서 더욱 취약



화재사고 발생 시 예상 출동 소요시간

2022년 기준 충남 119안전센터 총 78개



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간 출동시간 격차 완화 노력 필요

(1) 이동거리와 출동시간의 지역 간 편차 발생(최근 5년간 출동 후 도착 소요시간)

화재 발생 시 현장출동까지 이동거리			신고 접수 후 현장도착 시간		
평균	시부	군부	평균	시부	군부
4.56km	4.40km	4.91km	6분 42초	6분 53초	7분 02초

자료: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. 2021. 충청남도 화재 데이터 분석

(2) 골든타임 도착률 지역 간 격차

골든타임 내 도착률	하위 지역	태안(53.4%)·청양(60.6%)·보령(66.4%)·논산(67.4%)	
	최상위 소방서	천안서북소방서(337초)	평균도착시간
	최하위 소방서	청양소방서(470초)	2분 13초 차이
	최상위 안전센터	천안서북 쌍용119안전센터(269초)	평균도착시간
	최하위 안전센터	태안 원북119안전센터 (585초)	5분 16초 차이

자료: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. 2021. 충청남도 화재 데이터 분석